

보 도 설 명 자 료 (‘22. 9. 1.)

제목 :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는 기자재 분야 수출로
원전 수출에 해당하며,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에 빠진
원전 생태계에 새로운 일감을 공급하여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것임

(8.31일자 한국경제TV 「한전기술, 엘다바 원전 불참...반쪽짜리
수주」 보도에 대한 설명)

② 한편, 엘다바 사업 당사자인 한수원은 오는 9월 국내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실시 예정이며, 13년 만의 대규모 원전 관련
수주로 기자재 업체 등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음

○ 대다수의 기자재 공급이 '23년 상반기 내 발주 예정인바,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본격적인 재개 이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문의 : 원전수출진흥과 김태우 과장 / 김성은 사무관(044-203-5336)

1. 기사 내용

-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는 주기기가 아닌 보조기기만 공급
하는 반쪽짜리 수주
- 이번 수주로 국내 원전 이후 생태계가 살아나길 기대하기는 어려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는 원전 기자재 분야 수출로 일감 부족
으로 어려움에 빠진 원전 생태계에 새로운 일감을 공급하여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것임
- ① 원자력 발전소 터빈 건물·기자재(2차측)는 원자로 핵심설비(1차측)의
성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설비로, 국가별로 원자력 규제 요건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석탄, LNG 등 화력발전소의 보조
기기와는 구분되고 진입장벽도 높음
- 아울러, 원전수출은 노형 수출 뿐만 아니라, 기자재, 운영·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함